

特許情報

尖端技術에서 본 特許紛爭(完)

〈前號에서 계속〉

設計미스로 著作權侵害의 퍼스컴互換機

1987年 1月 미국의 시애틀에 揚陸된 松下電器産業의 IBM 互換퍼스컴 「비지니스 파트너 Fx-800」이 IBM社의 소프트웨어 著作權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摘發되었다.

시애틀에서 通關중에 퍼스컴 하나 하나가 IBM社의 檢査用 플로피(FLOPPY)로 체크되고 있는데 그 때 松下製品이 IBM社의 소프트에 꼭 닮은 것이 밝혀졌다.

미국에서 1,500臺 유럽에서 500대가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으로 약 3億圓을 지불하라는 요구에 和解하기로 하였다.

침해한 것은 松下製 퍼스컴 BIOS(Basic. Input. Out-put. System)로서 IBM 互換機를 만들기 위해서는 IBM社의 BIOS와 같은 기능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機能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記述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類似할 수 밖에 없는데 그 類似性이 度가 지나쳤던 것이다.

IBM社는 소프트의 類似程度를 나타내는데 퍼센트를 사용하며 유사도가 30%이하인 경우는

침해 의심없고, 80%이상인 경우는 複製로 간주하고 있는데 松下製品의 類似度는 32%라는 그레이즌에 상당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그레이즌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소프트웨어 侵害를 주장하고 나오는 IBM社의 침해배제 자세가 注目받게 되었다.

設計 잘못으로 著作權侵害의 汚名을 산 松下電器産業에서는 IBM社의 互換機路線에서 사실상 철수하기로 하고 소프트웨어개발에 全力을 쏟기로 하고 있다.

NEC對 엡슨의 퍼스컴 컴파티紛爭

1980년에 320億圓의 市場을 형성한 퍼스널 컴퓨터市場은 1982년에는 2,500億圓 市場에 달했다.

최근에는 5,000億圓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市場에서 NEC對 엡슨의 퍼스컴 컴파티機의 著作權紛爭이 종료되고 있다.

1987年 3月 13日 세이크엡슨이 NEC(日本電氣)의 퍼스컴「PC-9801 시리즈」를 발표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

엡슨이 발표한 날 저녁에는 NEC가 東京의 經團連 記者 클럽에서 「發賣를 개시함에 있어서 판매중지 가처분을 포함한 對抗措置를 시급히 검토하겠다」 발표하였다.

4月 7日에는 프로그램 著作權侵害라는 判斷에서 東京地方法院에 제조판매중지를 청구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하였다.

NEC에서는 엡슨의 本體를 제공받아서 2日間이란 短時間에 조사를 마치고 BIOS部 뿐만 아니라 ROM 등 광범위에 걸쳐 위반사실을 발견, Basic 등도 包含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엡슨측도 강경히 맞서, 별도의 BIOS를 이미 개발해서 가지고 있으므로 4月 31日부터 이 다른 機械를 발매하였다.

퍼스컴市場은 NEC의 PC-9800시리즈가 獨占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NEC컴파티機의 등장에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였다.

세이크엡슨에서는 문제가된 컴파티機 「PC-286

시리즈」4機種의 발매를 中止할 것을 결정, 대신 같은 互換性을 가지며 비즈니스專用的 「PC-286모델O」를 발매하고 문제의 기종에 대해서는 새로 BIOS, Basic을 개발해서 퍼스컴 컴파티機器를 둘러싼 兪름紛爭에 나서기로 하였다.

5月 19日에는 NEC가 記者會見을 하고 세이코 애플이 발표한 NEC互換퍼스컴 「PC-286모델O」에 대해서도 저작권침해 兪무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 5,000개의 PC-9800用 소프트웨어중 57%가 作動不能 핵심인 互換性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제까지는 和解라는 형태도 結착되어 있던 業界였으나 NEC의 強硬路線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NEC 對 세이코 애플의 퍼스널컴퓨터의 互換機(컴파티)를 둘러싼 소프트웨어紛爭에는 커다란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독주하고 있는 NEC의 퍼스컴을 이용하는 安易한 컴파티作戰도 간단치는 않게 된 것 같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제특허전쟁은 점차로 격심해지고, 교묘한 計畧戰까지 出沒하여 생각지도 못할 巨額의 和解金이 必要한 時代가 되었다.

금후 기업이 살아 남는 길로는 특허관리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분쟁준비금도 정입하여 抗戰體制를 확립하고 기술교환이 가능한 技術開發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有能하고 戰略的인 特許辯護士를 미국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라이벌企業이라 보이는 기업의 開發戰略, 特許戰略을 事前에 철저히 분석해 두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다. <※>

신 간 안 내

技術導入라이선싱契約

규 격 : 국판 194면

저 자 : 조철현(변리사)

가 격 : 4,000원

발행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신 간 안 내

미·일 기업의 연구개발평가

저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판 : 550면

가격 : 21,000원

지적소유권법(최신판)

저자 : 宋永植 外 2人

국판 : 959면

가격 : 18,000원

경 영 학 원 론

저자 : 金寅鎬

규격 : 487면

가격 : 7,500원

한·미 무역입문

저자 : 朴勇正

규격 : 국판 319면

가격 : 2,500원

영문 법령집

저자 : 한국발명특허협회

규격 : 191면

가격 : 4,000원

심 사 편 램

저자 : 한국발명특허협회

규격 : 800면

가격 : 11,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발명장려관 내 자료판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568-8263